 <b>인천광역시</b>	<b>보 도 자 료</b>		<b>경 축</b> <b>재외동포청 개청</b>
	배포일자	2023년 6월 27일(화) 총 3매	
담당 부서   대기보전과	담 당 자	• 대기정책팀장   윤은주 ☎440-3501 • 담당자   우성진 ☎440-3503	
<b>사진(이미지)</b>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b>참고자료</b>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b>보 도 시 점</b>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 자체 개발 분뇨압송시스템 본격 운영**  
**- 태양광 이용한 전기식 압송시스템 ... 대기오염, 온실가스 감축 기대 -**  
**- 인천시·인천환경공단이 공동연구 ... 전국 최초 도입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27일 서구 가좌동 소재 인천환경공단 가좌사업소에서 자체 개발한 ‘탄소중립 분뇨압송시스템’ 시연회를 갖고 본격 시범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전기식 분뇨압송시스템은 분뇨의 처리시설 이송시 경유차량의 디젤엔진 동력을 이용해 압송했던 기존 시스템을 전기식으로 전환한 것으로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를 획기적으로 감축할 수 있는 친환경 기술이다.

인천시와 인천환경공단은 지난해 5월 대기오염물질 감축뿐만 아니라 작업환경 개선, 이송에 따른 사회적 비용까지도 절감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에 뜻을 같이 했다.

수 차례의 회의와 연구를 진행한 결과 1년여만에 ‘탄소중립 분뇨압송 시스템’을 제작·운영하는데 성공했으며, 이는 전국 최초 사례다.

인천시 관내 100여 대의 분뇨 운반차량의 압송시스템을 태양광을 이용한 전기식 압송시스템으로 변경할 경우, 연간 147톤의 탄소배출을 감축할 수 있다. 이는 30년생 소나무 1ha(10,000㎡, 축구장 1.4개 크기) 당 연간 이산화탄소 흡수량을 10.8톤으로 가정할 때 축구장 약 19.6개 크기인 약 14ha의 산림을 대체하는 효과다.

또한 대기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NOx)과 미세먼지(PM-10), 황산화물(SOx)을 1년 기준, 각각 112톤·11톤·79톤 감축할 수 있고 차량 연료비용도 약 7천 7백만 원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인천시는 전기식 분뇨압송시스템의 확대 운영과 함께 태양광을 이용한 자체 소비전력의 확보와 친환경 압송시스템의 타 분야 적용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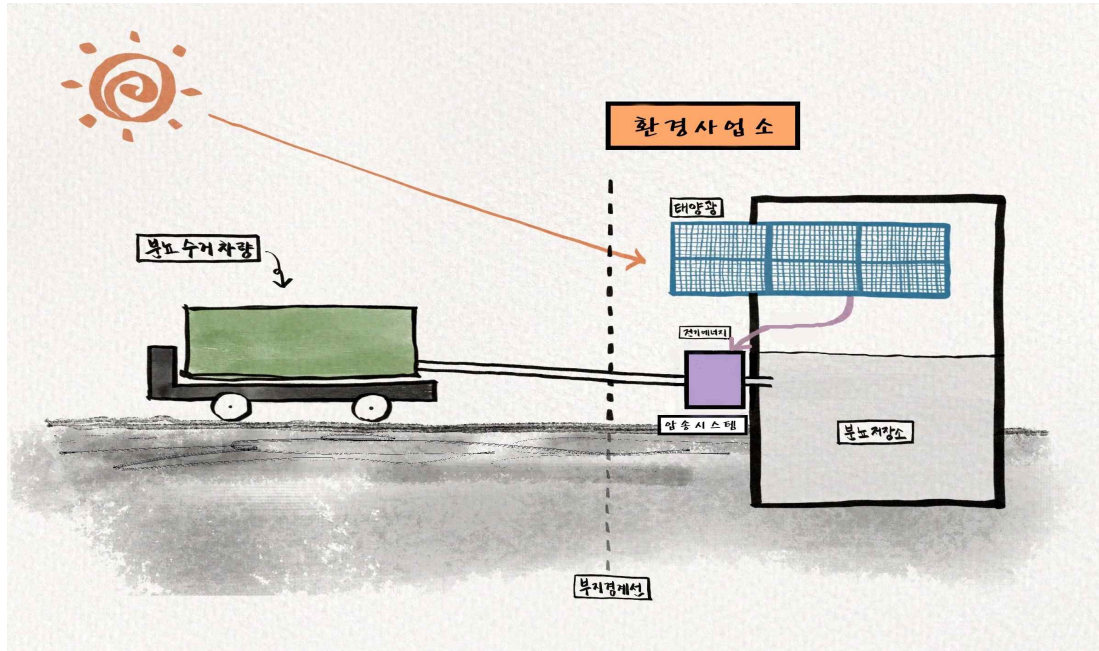
김철수 시 환경국장은 “앞으로도 새로운 사업의 발굴과 함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기업과 공공기관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이 있기를 기대한다”며 “대기오염물질의 감축과 2045 인천 탄소중립 비전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1. 압송시스템 개요도

2. 분뇨압송시스템 및 운영 사진

붙임

## 압송시스템 개요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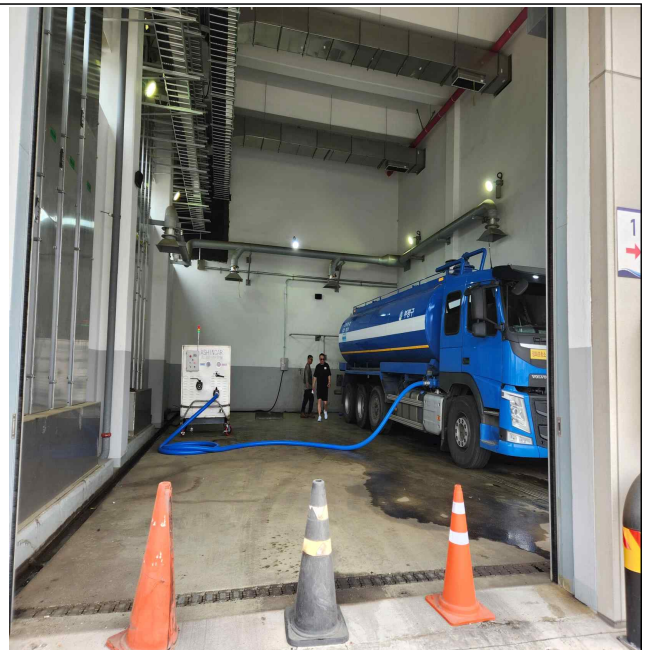
붙임

## 분뇨압송시스템 및 운영사진



① 분뇨압송시스템

→ 분뇨차량으로 공기 주입 장치



② 탄소중립 분뇨압송시스템 가동 중